

2023년 7월 2일

주간 충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받은 복을 세어 보는 맥추감사주일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대로”

(신 16:10)

오늘, 제 5차 성찬식 및 맥추감사주일

일시: 7월 2일(오늘), 1~3부 예배시 장소: 본당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청년 부흥의 날

일시: 7월 8일(토), 13:30~17:30

주제: 우리가 충현의 내일입니다

강사: 한규삼 담임목사

찬양: 프렌즈 워십 장소: 갈릴리홀 및 본당 앞마당

2023년 충현장학생 선발

* 자세한 사항은 본지 8면 참고

금주 금요집회 강사

일시: 7월 7일(금) 금요집회 시

강사: 민종기 목사

(미국 충현 선교교회 원로목사)



2023 순 전도행사



와 보라!

초청자 작성기간: 6월 25일(주) ~ 7월 9일(주)

순 '새가족의 날'

2023.8.20(주) ~ 9.3(주)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음악회 새가족 초청

2023.9.8(금)

새가족 초청 교구모임

2023.9.10(주)

전반기 순방학 안내

기간: 7월 9일(주) ~ 8월 20일(주)

차량안내부 봉사자 모집

차량안내부에서 충현의 예배와 주차를 섬길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상: 모든 성도

봉사시간: 매주일 1~2시간도 가능

지원방법: 차량안내부(본당지하 1층 출입구 쪽)에 방문하여 지원서 작성

기타문의: 김명성 부장(010-9910-4567) / 정재복 차장(010-3712-0165)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부서	일정	장소
영아부	7월 15일(토), 16일(주일) 오전 10시	제1교육관 1층 영아부실
유아부	7월 15일(토), 16일(주일) 오전 10시	제1교육관 2층 유아부실
유치부	7월 15일(토), 16일(주일) 오전 10시	제1교육관 2층 유치부실
유년부	7월 21일(금)~23일(주일) 오후 2시	제1교육관 3층 유년부실
초등부	7월 21일(금)~23일(주일) 오후 2시	제1교육관 3층 초등부실
중등부	7월 23일(주일)~25일(화) 오전 10시 30분	충현기도원
고등부	7월 27일(목)~29일(토) 오전 9시	충현기도원

허무한 날을 살아가야 할 때 필요한 지혜

(전도서 7:15-22, 29)



인생에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굴레가 있습니다. 지금 안정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이렇게 살아도 될지’,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고민하다보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허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모든 가치가 무너지는 허무함 속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왕자로 태어나 왕권을 이어받는 축복과 뛰어난 지혜를 받아, 자신이 하고 싶은 바를 모두 해 보았음에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그는 헛된 가치를 추구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지혜로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 사업에 성공함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를 쟁취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즐기며 웃음을 만끽했습니다. 많은 발명과 발견을 하고, 책도 많이 썼지만 이조차 고단할 뿐이라고 전도서를 통하여 고백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헛되다고 느껴지는 이유와,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합니다.

죽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그리고 허무한 날을 사는 법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돌지어다 (전 7:2)” 전도서 기자는 잔칫집의 흥겨움보다 초상집에 가서 슬픔을 함께 하는 편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전 7:4)” 우리 교회의 좋은 문화 중 하나는, 장례가 있을 때마다 교구에서 정성스럽게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유가족들이 위로를 받고,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슬픔이 무엇이며, 그 슬픔을 본질적으로 극복하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전 7:1)” 성경은 대구법을 통하여 이름과 기름을 비교합니다. 사치스럽고 고급스러운 삶을 상징하는 좋은 기름보다, 올곧은 삶을 산 흔적이 남는 좋은 이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인생이 허무해 보일 때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해보라는 권면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인생에 죽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선포하며,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와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지혜야말로 참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줄로 채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 16:6)”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 즉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울타리 안에서 지낼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함이 지혜입니다. 그렇기에 사소한 삶의 일상에서도 놀라운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 3:13)” 일상에서 가장 단순한, 먹고 마시는 일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전 5:18)” 일상을 살아가는 수고의 ‘몫’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있습니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전 9:9)” 아내로 상징되는 소중한 가족은 물론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 7:14)” 인생이 허무해 보이는 이유 중 또 한 가지는,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조차 모르는 곤고한 날입니다. 이에 대하여 전도서 기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있는 성도를 보

호하시는 방법에는 독수리 보호, 까마귀 보호, 그리고 울타리 보호가 있는데 그 중 곤고한 날에는, 곤고함이 왜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는 울타리를 넘어 우리에게 왔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곤고함이 우리에게 다다르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를 되돌아볼 때,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지 아니하며, 형통한 날에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형통한 날에 교만해지거나, 아직 닥치지도 아니한 곤고한 날을 걱정하느라 기뻐하지 못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쩔이나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전 7:10)” 예전에, 저는 미국에서 이민 교회를 두 곳 정도 섬겼습니다. 이후 가급적 방문을 삼가지만, 혹시라도 방문하게 되면 성도님들께서는 저를 반겨주시며 “목사님께서 계시던 때가 그리워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바를 즐거워하기도 했지만 이내 이러한 제 모습이 지혜롭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좋았던 과거의 기억은 그대로 간직하되, 거기에 매여 사는 모습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 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15절)” 성경은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삶의 모습에서 허무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멸망하는 의인과 장수하는 악인의 모습에서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16절)” 이에 대하여 솔로몬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의인이 되지 말라는 권면이 아니라, 스스로 의로운 척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점을 인정함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18절)” 인생의 허무를 벗어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전도서 3장은 ‘만사의 때가 있지만, 우리가 이를 모르기에,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며, 마지막 12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유익한 삶의 방식이자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인생의 수많은 허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낙관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답을 찾지 못한 채 울부짖는 시편의 기자와 주변으로부터 흥미한 삶의 도전을 받으며 어려움 가운데 지내는 욥기가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으며, 그 어느 곳에서도 인생이 허무함을 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단순함에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최선의 방법이라 강조합니다. 매일 먹고 마시는 일상조차 새롭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일상의 단순한 일들이 새롭게 느껴지고 삶이 역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방법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만나면 세상의 끝이 얼마나 환하게 열리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삶이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The Wisdom You Need When You Have to Live a Meaningless Life

(Ecclesiastes 7:15-22, 29)

Rev. Kyu Sam Han

There are some bridles in life that no one can avoid. However, even though you are in a secure state, while you are worrying about whether it would be all right to live like this, or whether this way in which you go on now would be correct, or what your toiling and striving to mean, you can feel meaningless about the fundamental problems of life. Ecclesiastes teaches wisdom about how to lead a life in the meaninglessness in which all the values fall down. Even though he was born as a prince and blessed with succeeding to the kingship and receiving supreme wisdom, and did everything he wanted to do, Solomon records in Ecclesiastes that everything in his life was meaningless. And besides, he was not a person who pursued meaningless values. He succeeded in the work through planning and building strategies by means of outstanding wisdom and gained naturally followed wealth, and enjoyed gathering with loving people and laughing at one another. He professes through Ecclesiastes that he invented and discovered many things, and wrote many books, which is only toilsome. And he also talks about the reason why he feels life is meaningless and the way of living life meaningfully.

Death, how to live when times are good and when times are bad.

"It is better to go to a house of mourning than to go to a house of feasting, for death is the destiny of everyone; the living should take this to heart." (Eccl 7:2).

The writer of Ecclesiastes says to go to a house of mourning and share sorrow together is better than the pleasure of a house of feasting. "The heart of the wise is in the house of mourning, but the heart of fools is in the house of pleasure." (Eccl 7:4). One of the good cultures of our church is to take charge of the funeral with wholeheartedness whenever it happens in each parish. It often takes place that through this the bereaved family are consoled and restore the faith. We can realize the wisdom through which we understand what the sorrow that takes a considerable part of our lives is and how we overcome the sorrow essentially. "A good name is better than fine perfume, and the day of death better than the day of birth." (Eccl 7:1). The Bible compares name with ointment by parallelism. It emphasizes the truth that a good name that has traces of living an upright life is much more important than fine perfume symbolizing a luxurious and sophisticated life. It is an exhortation that encourages us to think deeply about living by what to hold on to when life seems to be meaningless. The writer of Ecclesiastes proclaims there is a limit like death in life, and says that the true wisdom is the wisdom for living within that limit and also the wisdom to be used as a driving force of life. "The lines are fallen unto me in pleasant places; yea, I have a goodly heritage." (Ps 16:6). God gave us an inheritance, that is, the place to live in. To realize we can dwell within the fence God assigned and stay there is wisdom. That's why the writer of Ecclesiastes says we can find amazing joy in things from a trivial daily life. "And people should eat and drink and enjoy the fruits of their labor, for these are gifts from God." (Eccl 3:13). It's because the simplest thing in life, to eat and drink is also a gift from God. "Behold, what I have seen to be good and fitting is to eat and drink and find enjoyment in all the toil with which one toils under the sun the few days of his life that God has given him, for this is his lot." (Eccl 5:18). There is also contained the amazing blessing of God in a lot of toils in living a life. "Enjoy life with your wife, whom you love, all the days of this meaningless life that God has given you under the sun—all your meaningless days. For this is your lot in life and in your toilsome labor under the sun" (Eccl 9:9). The fact that we can live together with precious family symbolized by the wife as well as loving people around us is also a gift from God.

"When times are good, be happy; but when times are bad, consider this: God has made the one as well as the other. therefore, no one can discover

anything about their future." (Eccl 7:14). One more reason of reasons that life seems to be meaningless is that we do now know when bad times will come. The writer of Ecclesiastes says about this, when times are good, be happy; but when times are bad, consider this. There are eagle protection, crow protection, and fence protection in the methods through which God protects his people within the covenant with Him, and when times are bad, we should consider why the bad times have come to us over the fence that God protects. When we consider why God allowed for bad times to come to us, lots of problems of life can be solved and we can trust in God continuously. The problem is that we do not consider when times are bad, and we are not happy when times are good. Not a few people do not feel happy because they are haughty when times are good, or because they are worried about the bad times that have not come yet. "Do not say, 'Why were the old days better than these?'" For it is not wise to ask such questions." (Eccl 7:10). In the past, I served a couple of immigrant churches in the United States. After that, I tried to avoid visiting them as much as possible, but when I happened to visit them, members there welcomed me saying, "I miss the times when Pastor ministered to us", which I would enjoy, but immediately I realized I was not so wise. It's because you can keep the good memory of the past within you as it is, but it's not wise to live bound by the memory.

"In this meaningless life of mine I have seen both of these: the righteous perishing in their righteousness, and the wicked living long in their wickedness." (v.15). The Bible says people can feel meaninglessness in the features of life which do not become as they expected to do. They also feel discouraged at the righteous perishing and the wicked living a long life. "Do not be over-righteous, neither be overwise—why destroy yourself?" (v.16). About this, Solomon instructs us not to be overrighteous. It is not the exhortation of not being righteous but the exhortation of not pretending to be righteous. It's because the true wisdom comes from that we recognize we do not know well. "It is good to grasp the one and not let go of the other. Whoever fears God will avoid all extremes." (v.18). The wisest method of being out of life's meaninglessness is the life of fearing God. Ecclesiastes 3 says,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but because we do not know it, in the end, we live a life of fearing God, and the last chapter 12 says 'to fear God is the most beneficial way of life and the way to follow God'. When we fear God, we can be out of a countless number of meaninglessness of life.

The Bible does not see life from only an optimistic perspective. The writer of Psalms who is wailing without finding answers for a long time and Job who is living receiving the challenge of confusing life from surroundings are the proof. But the Bible does not see life from a pessimistic perspective, and nowhere discusses the meaninglessness of life. Rather, the Bible emphasizes we can enjoy the pleasure of life from the simplicity of daily life, and the fear of God is the best way of doing it. It is because even eating and drinking every day has the grace of making us feel new. When we meet Jesus personally by eating his body and drinking his blood, our lives change. Simple things in daily life are felt new and our lives become dynamic by making companionship with Jesus. The best way of fearing God is to meet Jesus. When you meet Jesus, you come to know how brilliantly the end of the world opens. I bless that a new life is taking place in Jesus and in the midst of the heart of fearing Jesus every day.



백마 부대 진중세례식

6월 17일 토요일, 9사단 백마부대에서 진중세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당연한 반응, 이상한 명령(출14:10~14)’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위원회 지도 박성덕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사단 군목인 이종도 목사와 여단에서 지원을 나온 김태웅 군목과 함께 세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충현교회에서 31명, 군 장병 51명, 관계자 20명으로 총 102명이 참석하였고, 그 중 총 21명이 세례를 받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 순서로, 우쿨렐레 찬양팀과 정정희 집사의 특송, 이진 집사의 플룻연주(반주 임하늘 집사), 이승준 권사의 팬플룻연주가 있었습니다. 귀한 특별순서들로 인하여 당일 세례식의 풍성함이 더해졌습니다.

백마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도 목사는, 군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들이 제대 후 사회에서도 이끌어주고 붙잡아 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군 교회와 사회 교회 간의 연대의 중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충현교회가 담당해주시기를 기대하며 부탁하였습니다. 23년 군전도회장으로 선출된 임창식 장로는 코로나 이후 재개된 군전도사역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며, 이 귀한 사역에 온 교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군전도사역을 위하여 세대와 세대가 어우러져, 청년세대가 군전도 사역의 주축이 되며 장년들은 그들을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응원하는 멋진 세대간의 연합을 위해서도 기대하며 기도해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진행되는 진중세례식에도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코로나 이후 재개되는 군전도 사역을 위하여 군전도회원을 모집합니다. 군, 장병들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서는 교구 및 해당 부서를 통하여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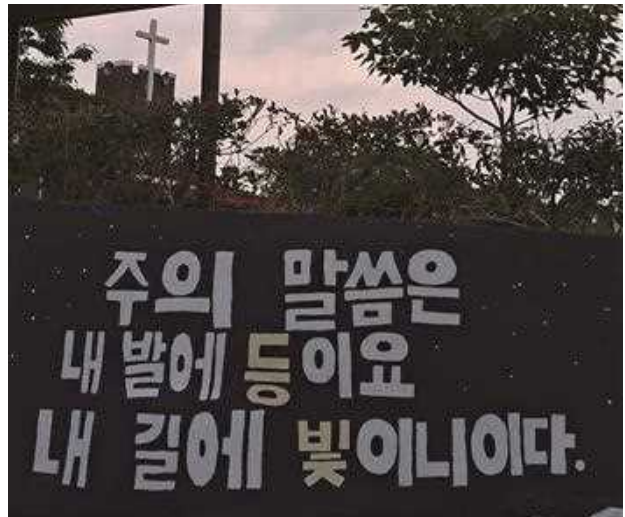
전남 화도교회 동역교회 전도지원 사역을 다녀와서

- 6월 9일(금) ~ 6월 11일(일) -



전남 고흥 화도섬에 있는 화도교회를 2019년도 코로나 전에 다녀왔고, 이번에 다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동안 화도교회를 품고 기도하며 사역하시는 송용호 목사님과도 교제를 해 왔습니다. 우리 팀이 화도교회에 가기 4주 전부터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후에 충현교회에서 전에 방문했던 전도팀이 또 온다고 광고를 많이 해오셨던 터라 저희가 갔을 때 아는 분들이 서로 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교제하면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 넘쳤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성도수가 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돌아가신 분도, 요양원에 들어가 계신 분도 계셔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화도섬 주민이 모두 28가구 인데 모든 분들이 예수 믿고 복음화 되기를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안 믿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전도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초청 잔치를 할 때에는 잘 받아들이지만 그 후에 꾸준히 말씀을 듣고 교회에 출석하고 믿음에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화도교회 성도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복음의 귀한 통로로 쓰임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안선희 권사



훈련부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이번에 처음 가는 화도교회 사역에 제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증거하기를 소원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생각보다 코로나 전보다 마을 인구가 줄어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축호 전도 하면서 만났던 주민들조차도 건강의 문제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많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어서 초청잔치에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회관 마당에서 세족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주일날 동역교회와 연합 예배를 드린 후 전도팀이 준비한 찬양과 율동, 전도 영상, 교제와 식사로 이어졌습니다. 새롭게 나오신 분은 안 계셨지만 뿌린 씨앗이 열매 맺혀지기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황수안 집사



주님의 은혜로 동역교회 전도사역의 종료까지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상황으로 훈련 및 준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웠지만 팀장님과 팀원 분들의 넓은 마음의 배려와 도움으로 시간이 갈수록 마음의 부담이 사역에 대한 기대와 동참에 대한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해 사역했던 곳이어서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다시 방문하게 되니 짧은 시간이었지만 4년 전에 뵈었던 분들과 다시 만나 함께 인사하며 서로가 주님 안에서 거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어서 더 반갑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민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화도 교회 성도님들과 서로 함께 하며 기쁘고 즐겁게 사역하는 팀원 분들을 보면서 많은 기쁨과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이며 인도하심이라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최재필 집사



2023 권사회 수련회를 마치며



2023년 권사회 수련회가 6월 20일(화) 본당에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 2:10)를 주제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개회예배는 권사회 지도를 맡고 계신 윤성복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이상석 서기 장로님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앞으로 권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지회별 찬양과 맛난 점심 교제 시간을 가졌고, 오후 시간에는 충현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시다가 현재 부산 동원교회 담임목사로 섬기시는 이범구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한규삼 담임목사님의 격려사와 폐회 예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시무권사, 은퇴권사, 명예권사님을 포함해서 711명이 현장에 참여해주셨고, 40명이 영상으로 참여해서 총 751명이 참석했습니다. 충현교회 권사회가 몸 된 교회를 더 잘 섬기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반 동안 인류가 맞이한 전염병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다시 현장 예배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권사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참여원인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원 권사들의 기도회와 회의를 몇 차례 거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쁨과 기대로 준비하였습니다. 좋은 날씨에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교제하며 그 동안 나누지 못했던 영적 은혜들을 나누고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예배와 특강과 담임목사님 격려사로 일상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육신이 회복되는 시간이었고 지회별 찬양은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연로하신 권사님들의 아름다운 열정과 하모니가 진실로 은혜였습니다. 충현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아 권사회의 방향과 역할 / 권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과제에 대해 PPT 발표로 권면해 주신 서기 장로님과의 시간은 지체하지 말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권사회 구조처럼 충현교회 권사회가 재도약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실시간 영상으로 수련회에 참석하신 권사님, 주님의 강하신 "힘" 으로 불드셔서 9월 영성훈련에서 꼭 뵈 수 있길 소망하며 음식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임을 깨닫게 하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모든 순서를 안전하게 운행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8교구 강정자 권사



권사회 수련회 때 찬양을 하였습니다. 연습시간도 없고 모일 시간도 없었는데 각 지회마다 어찌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전심으로 부르시는지요. 전도서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6:12)' 이 말씀을 읽으며 주의 일을 할 때의 세겹줄을 생각했습니다. 토요일의 합심해서 악보 만든 일, 우리 지회장님께서 발이 부르츠시도록 상기된 얼굴로 뛰어다니시며 일을 하실 때 항상 함께 도움이 되시던 임원들의 모습이 내내 생각이 났습니다. 찬양을 하며 참 행복했습니다. 녹화된 찬양을 들으며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알토 음정을 잡아서 화음에 맞춰서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찬양 동영상 보며 모두 행복한 얼굴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신 주의 은혜 크신 은혜를 목청껏 부르시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죄를 속해 주시려 갈보리 십자가 보혈 흘리신 그 은혜를 찬양 드린 우리의 찬양이 날개를 달고 주님 전에 올라가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께 향기되어 영광 돌린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흥향하시길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교구 장순양 권사

모이기에 힘쓰지 못했던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어느덧 모든 것이 제 자리, 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우리 충현 교회가 70주년을 맞는 시간에 권사회가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은퇴, 시무, 명예 권사님 모두가 같은 시간 하나가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지하철을 타고 땀을 흘리시며 본당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은퇴선배 권사님들... 100세를 바라보시는 그 연세에도 얼굴 가득 소녀 같은 미소 지으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이 귀한 선배 권사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역사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충현의 부흥과 영혼구원을 위한 봉사와 헌신하신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본을 잘 받아 계속 이어가며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신앙의 아름다운 되물림이 있는 충현 권사회가 된 것을 확신합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신 성령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6교구 이희연 권사

가정세미나를 마치며...

지난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청년3부 주관으로 <가정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사랑과 지혜로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총3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가정 세미나는 한국인격심리치료협회 유근준 교수님이 2주간 강의를, 청년3부 이미영, 이해선 집사님이 마지막 강의를 담당해주셨습니다. 가정의 핵심인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를 성경과 상담적 관점을 통해 살펴본 금번 세미나는 청년3부의 많은 지체들에게 유익하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총현의 차세대와 다음세대가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부와 자녀에 대해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었고 전문가의 이론과 실전을 조화롭게 배울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서 물론 기도로 극복을 해야겠지만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들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물론 이론상의 이상적인 방법들을 배우는 시간도 너무 좋았지만 믿음의, 가정의 선배의 생생한 이야기들이 현실에 적용하기에 좀 더 쉽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해선 집사님 짱!!! 준비해 주시고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간식... 다이어터를 무너트리는 맛있었습니다!!

김유림 집사

가정세미나 3주간 진행되어 시리즈 느낌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일회성 느낌이 아니라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더 기대가 되었고 특히 첫 주 유근준 교수님의 부부에 대한 강의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더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무의식이 작용하는 사이라는 그 전제를 알게 된 것 만으로도 부부 사이의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느낌이었고 배우자의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강의를 들 수 있게 3주간 가정세미나 준비하느라 애쓰는 면려회 감사드려요! 가정세미나라는 주제에 맞게 가정을 세우고 살릴 수 있는 기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순원 중 아직 하나님 영접하지 않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이런 내용의 강의를 밖에서는 들을 기회가 없는데 교회를 다녀서 들을 수 있어서 좋다고 얘기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교육이 또 있어서 잘 배울 수 있으면 합니다^^

안유리 집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강의자 분들 고맙습니다. 아내 눈을 쳐다본 게 얼마 만인가 싶네요. 아직 연습이 많이 필요하지만 대화법도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25일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공감도 되고 웃기도 많이 웃고 강의 준비하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조창희 집사

가정이라는 큰 틀에서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좋았습니다. 외부 강사님 뿐만 아니라 각 구성원분들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세미나도 진행되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세미나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학 집사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부부 사이에서 부족한 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반성과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에 틀림이 없다는 믿음으로 더 아끼고 사랑해야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진혁 집사

단회성 가정세미나가 늘 아쉬웠는데, 연속으로 3주간 하게 되어 더 의미 있고 유익했습니다. 무언가 가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형태로 자리 잡혀 갔으면 합니다.

김현진 집사



2023년 충현장학생 선발 안내

1. 선발대상

충현교회에 등록교인으로 고등부, 청년부 예배와 집회에 참석하는 자.
충현교회에 등록교인으로 교구 또는 봉사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
※ 충현장학금 수혜 누적횟수 (대학생 장학금) 4회 이상자는 선발에서 제외 됩니다.

2. 일정

7월 16일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마감 (14:30 까지)
7월 20일 ~ 28일 : 자체심사 (고등부, 청년부)
8월 4일 : 면접 (교구, 봉사부서 추천 신청자)
8월 16일 : 선발자 공고 - 홈페이지 (주간충현은 8월 20일자 공고)
8월 20일 : 장학증서 수여식 (찬양예배 시)

3.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교회 홈페이지 교회소식을 참고하여 다운 받아 사용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

사무국 회계과 ☎ 552-8200, 구내 : 406, 407번)

사랑부 봉사자 모집

1. 사랑부 교사

내용: 찬양·울동, 행정교사 시간: 주일 10:30~12:30 장소: 제2교육관 2층 사무엘홀

2. 사랑부 여름수련회 헬퍼

날짜: 8월 14일~15일 장소: 양평 숲속의 아침 문의: 임진실 목사(010-9559-9467)

안수집사회 월례회

일 시: 7월 2일(오늘) 12:10 장 소: 안수집사회 사무실

금주 단기선교 파송

전도지역	팀장 및 파송인원	기간
베트남 1팀	베트남 호치민	김석영 권사 외 10명
7월 6일(목) ~ 7월 15일(토)		

금주 동역교회 파송

전도지역	팀장 및 파송인원	기간
4교구 1팀	경남 통영 추봉교회	김우정 안수집사 외 5명
7월 7일(금) ~ 7월 9일(일)		

예배 담당(7/5~7/9)

날 짜	예 배	설 교	사 회	기 도
7/5	수요 I	자기 마음으로 (렘 23:16-22) 김주한 목사	강성은	오정선
7/7	금요일집회	아브라함의 증보기도 (창 18:16-26) 민종기 목사	임대영	
7/9	주일 I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렘 27:1-11) 한규삼 담임목사	이다현	이양선
	주일 II		윤성복	박성철
	주일 III		위안복	이경환
	주일찬양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마 20:8-16) 박요셉 목사	김승래	이광국

예배 및 집회 안내 ☎02-552-8200)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 전 9:00	본 당
	II 오 전 11:00 (수어 예배,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III 오 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 후 3:30	본 당
수요 예배	오 전 11:00(본당)	
금요일 집 회	오 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00	갈릴리홀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10:50~12:00	바나바홀(제1교 103호)
유아부	10:50~12:00	마태홀(제1교 201호)
유치부	10:50~12:00	마가홀(제1교 202호)
유년부	10:50~12:00	바울홀(제1교 301호)
초등부	10:45~11:30	디모데홀(제1교 304호)
중등부	10:45~11:45	빌레몬홀(제1교 404호)
고등부	10:45~11:40	베드로홀(제1교 504호)
청 년 1 부	14:00~15:30	에스라홀(제3교 B201호)
청 년 2 부	14:00~15:20	한나홀(제2교 402호)
브릿지공동체	14:00~15:30	사무엘홀(제2교 204호)
청 년 3 부	12:30~13:50	누가홀(제1교 204호)
신혼가정부	12:30~13:30	두란노홀(제1교 102호)
12교구그루티공동체	13:00~13:50	야고보홀(제1교 501호)
에바다부	12:40~13:40	여호수아홀 (제2교 301호)

기도원집회 안내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화요일집회	오전 11:00	①호차 9:50 본당 앞 출발(직행) ②호차 9:40 잠실역 3번출구, 10:20 야탑역 2번출구 BYC 앞

금주 화요일집회 강사: 임대영 목사
금주 기도원 봉사: 6교구

구분	시간	장소
사랑부	10:45~11:50 (성인) 11:00~12:00(아동, 청소년)	사무엘홀(제2교 204호)
성경아카데미	12:20~13:30(에스라) 12:40~13:40(아볼로)	디도홀(제1교 401호) 디모데홀(제1교 304호)
소망부	12:15~13:30	갈릴리홀
새가족기본과정부	오 후 12:10	베다니홀
새가족양육부	오 후 12:10	엠마오홀
11교구(새가족)	오 후 12:10	느헤미야홀(제3교 101호)
어와나부	1910~2050(금요일집회시)	제2교육관 4층
예꿈 양육부	(주)12:00~14:45	예꿈돌봄교실(제1교 601호) 예꿈돌봄교실(제1교 701호) 예꿈교실(제1교 702호)
국내외국인선교부	11:00~12:10	여호수아홀(제2교 3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2교육관 1층
발달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충현평생대학원	(목) 오전 11:00	갈릴리홀

※ 각 부서별 예배전 찬양과 예배후 반별 GBS등의 별도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22-1437	이진렬	고등부	
2	22-1973	조재이	초등부	
3	23-0872	표이현	유년부	
4	23-0889	장인혁	중등부	송선주
5	23-1042	김예주	유치부	
6	23-1057	표이한	유치부	

<개인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23-1108	이사라	기본과정	
2	23-1123	박민하	기본과정	오화자
3	23-1124	문신영	기본과정	유병규

<가족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23-1110	김소은	기본과정	
2	23-1128	김현	기본과정	
3	23-1116	김동만	기본과정	
4	23-1117	강정희	기본과정	
5	23-1118	신용욱	기본과정	
6	23-1119	경명숙	기본과정	
7	23-1120	유창도	기본과정	
8	23-1121	김홍자	기본과정	
9	23-1122	유수인	기본과정	
10	23-1125	전혜원	기본과정	
11	23-1126	조은수	사랑부	
12	23-1127	조은석	사랑부	

<차세대위원회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23-1114	이경진	청년2부	
2	23-1115	우태원	청년1부	

출산

1. 성백규 성도, 이은혜 성도(8교구) / 출산, 아들(성민제), 5월 25일

별세

1. 박화단 타교집사(이은옥 집사의 시모, 6교구) / 22일 별세, 24일 장례
2. 윤순옥 씨(유병선 성도의 모친, 에바다부) / 24일 별세, 26일 장례
3. 문태수 타교집사(문현주 집사의 부친·최은열 안수집사의 장인, 9교구) / 6월 29일 별세, 7월 1일 장례
4. 전예순 집사(조형모 성도의 모친, 6교구) / 6월 29일 별세, 7월 1일 장례

교구별 주력새벽기도(7/3~7/9)

날짜	설교자/기도자	설교본문	주력교구
3 (월)	윤성복/노인기	딤후 2:1-15	9교구
4 (화)	한규삼/김희동	딤후 3:1-7	전교인
5 (수)	김상래/이석중	딤후 3:8-15	전교인
6 (목)	윤준식/이왕진	렘 1:1-10	5교구
7 (금)	이기영/김성해	렘 1:11-19	1교구
8 (토)	권순동/권순동	렘 2:1-19	전교인
9 (주)	정석훈/정석훈	렘 2:20-28	전교인

섬 · 기 · 는 · 분 · 들

한 규 삼 담임목사

■ 사무장로

임창식 전도위원	신광철 충현동산이사장	이상석 당회서기	오순도 소망부장	양기수 충현복지재단이사장
김태식 9교구장	이상섭 행정위원	이보신 인사위원	이상해 기도원부장	김성호 증보기도부장
조중민 봉사위원	이상복 교구위원장	지규성 선교위원장	김영주 전도위원	최민석 할렐루야찬양팀장
김명성 차량안내부장	이창희 충현복지재단임시서	백봉선 재정위원장	박재현 행정위원	이광신 예배위원장
이흥기 감사위원장	송한천 5교구장	조윤준 세움위원장	최현구 인사위원	남용승 인사위원
김영환 전도위원장	변창대 당회부서기	허만선 찬양위원장	안연식 10교구장	현준봉 봉사위원장
양효민 행정위원장	박원화 성례부장	이상배 기획위원장	박명근 8교구장	김종훈 새가족위원장
송영상 성경통독부장	전성욱 아멘찬양대장	박건일 4교구장	배종락 건축위원장	김철남 예루살렘찬양대장
김희동 3교구장	홍금성 교육위원장	강태영 외선부장	장기락 벨렐찬양대장	홍승길 2교구장
정인욱 기획위원	남준호 차세대위원장	윤순규 1교구장	김상열 임마누엘찬양대장	이경환 6교구장
이양선 7교구장	박성철 11교구장	김열환 예배부장	김세종 선교위원	한홍연 헌금부장
최규욱 예배위원	최승민 제자교육훈련부장	이석재 평생대학원장	송문식 인내부장	문영규 12교구장
김충식 전도위원	신현욱 실로암대장	임병익 사랑부장	박노익 교육지원부장	

■ 목사

이기영 1교구	강성은 선교위원회	김주한 11교구	이성환 12교구	권혁근 7교구
윤성복 9교구	박동진 2교구	문진호 3교구	정석훈 8교구	김유석 에바다부
김상래 브릿지	전영재 10교구	박영환 6교구	위안복 4교구	윤준식 5교구
임대영 고등부	신경철 초등부	임진실 사랑부	김승래 신혼가정부	배진현 휴직
박성덕 청년2부	권순동 청년1부	박요셉 청년3부	이다현 중등부	

■ 여전도사

송진경 5교구	주은숙 6교구	이수경 평생대학원	홍명주 9교구	유현정 유년부
조기숙 7교구	여정광 8교구			

■ 교육목사

선명환 외선부	최준호 소망부
------------	------------

■ 교육전도사

김희영 유아부	이영미 유치부	박예령 영아부
------------	------------	------------

■ 협력선교사

강기엽 최동현	윤해균	윤병범	강영미	한용관
------------	-----	-----	-----	-----

■ 현지사역자

송요한	자르갈	사란자야	라우단다쉬
베	웁	스테판	파우크
뿌지	군친이	이시	윤시안
장지축	조영인	말릭	스텔라

■ 자원선교사

강영기	김경생	김산숙	김영암	김형진
박태연	안석렬	유재훈	유창무	장수진
정은희	허요셉	홍형화		